

## ■ 상록탑 경계 짓는 삶의 힘



황지원 미디어부장

지금의 내 삶은 몇 챗터 정도에 와있을까? 새해가 시작되고 모두가 신년 목표를 외치던 연초가 얼마 안 지난 것 같지만, 벌써 올해의 3분의 1이 지났다. 나는 뭐든 쉽게 싫증나고 재밌어 보여 시작한 것도 익숙해지면 지루해한다. 매일같이 '지겨워'를 연발하기에 '분기', '새해', '학기'와 같은 경계선들은 반가운 상징이다. 이 경계선을 만나면 지금의 지루함을 떨쳐내고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경계선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었고, 설렘은 반복되는 일상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됐다. 이 원동력에 대한 갈망이 심화된 것은 대학교 때부터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해 바뀌는 담임 선생님과 교실, 반 친구들 덕에 신학기의 설렘을 주기적으로 맞보았다. 당장의 일상이 지루해질 즈음이면 신학기의 설렘은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 졸업 후에는, 변화가 많은 도시인 서울에서의 일상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서울은 예상보다 더 화려했고 시시각각 변했다. 그러나 서울의 화려함은 곧 익숙해졌다. 반년이 지나도 한 해가 지나도 내 대학생으로서의 일상에 매해 바뀌는 담임선생님, 교실, 반 친구들 같은 정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변화없는 삶이 만드는 지루함이 화려함을 향한 설렘을 지워버렸고, 쉽게 활기를 잃게 했다. 상경 전에 살던 '구미'보다 새로운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새로운 설렘과 원동력이 되진 못한 것이다. 설렘과 원동력이 사라져 텅 빈 내 속은 조금씩이 대신했다. 정체된 것만 같은 내 모습과 달리 큰 폭으로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동기들을 보며 차오른 감정뿐이었다. 나름대로 학생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도 발전 없이 사는 기분만 내내 들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하루하루가 설렘, 안 가본 음식점에 가보면 좀 재밌을까, 그렇게 자그마한 설렘을 찾다 보면 덩어리지고 재미없는 지금의 삶이 다채로운 일상이 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내 삶에 계획을 짓는 경계선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원동력'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올해는 경계 짓는 삶을 살기 힘든 조건에 놓여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사의 방에 창문

이 따로 없는 것이다. 작년에 살던 호실보다 쾌적하고 넓다는 이유로 환호성을 지르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햇빛이 들어올 창문이 없음을 알았다. 하루의 경계를 짓는 게 원동력을 얻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수업이 없는 날에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다 보면, '지금 내가 시계로 보고있는 시간이 진짜 시간일까'라는 의심까지 든다. 사계절이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극야' 현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학사속 '극야' 현상과 살다 보니, 2022년의 챗터 1,2,3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새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경계 짓는 등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대처방안은 사실 많았다. 방 밖을 나가고, 알람을 맞추고, 시계를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한다면 내 하루의 경계선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의식적으로 경계 짓는 작업이 더 필요해졌을 뿐이다. 이곳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계 짓는 습관'은 내게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경계 짓고 활기를 불어넣는 삶이 없다면, 계속해서 싫증이 내내 삶은 낮이 없이 항상 어두운 '극야' 상태일 것이다. 언젠가 대학생 신분을 벗어난다면, '학기'라는 기준점마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끊어살기'로 삶의 여러 챗터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앞으로 더 하면서 흥미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모든 것에 흥미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루하루를 끊어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다. 경계 짓는 삶은 다른 사람과 나의 행복을 재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전의 나에서 더 나은 삶, 더 흥미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찰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삶의 챗터도 하나하나 끊어가며 되돌아보고 사소한 새로움을 더해보면 좋겠다. 하다못해 2개월동안 방영되는 드라마도 16개의 챗터가 있는데, 20년 넘게 나오 살아오며 필요한 챗터는 몇 개 일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경계 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드라마는 16개의 챗터가 있고, 각 드라마마다 이 챗터를 나누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처럼 삶을 끊어살고 경계 짓는 방식 또한 제각각이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면, 새 친구를 사귄다거나, 혹은 월을 기준으로, 계절을 기준으로, 감명 깊었던 예술 콘텐츠를 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기준점은 제각각일 것이다.

나는 오늘 잠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루를 경계 지을 것이고, 내일 아침 햇빛 대신 알람과 함께 일어나며 할 일을 세울 것이다. 경계 짓는 삶의 힘으로.

## ■ 금주의 책



###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조기현 지음/서울/이매진/2022

아픈 가족을 돌본 영 케어러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가족의 돌봄과 미래의 삶을 맞바꾸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족 돌봄, 지역 돌봄, 국가 돌봄을 통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안전해지는 진정한 돌봄 사회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영 케어러는 만성적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 문제,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젊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영 케어러들은 한결같이 돌봄으로 인해 삶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돌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미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전작을 통해 청년 보호자의 가난 경로를 탐색했던 저자는 앞으로 올 초고령 사회가 곧 돌봄 사회로의 직행을 의미하며, 가족, 돌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장은 멈출 수 있어도 결코 돌봄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저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 '돌봄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 책/  
3층 일반자료실 362.82 조19시

## ■ from 편집국 '보이는 독자'라는 원동력



박하경 편집국장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파릇한 봄의 정취를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가운데, 이대학보도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발행을 하게 됐네요. 매주 한 호수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씬이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문득 '이걸 읽게 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이 생기기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독자분들을 만나 뵙기 어려운 지금, 배포대에 놓인 신문이 줄어들고 이대학보 홈페이지 기사를 조회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학보를 챙겨 읽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닫고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한 켠에는 매 기사, 매 발행호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가닿고 있는지 걱정도 분명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대학보의 온라인 패널단 '학보메이트'는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학보는 어떤지 이야

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학보의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사들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시곤 하지요.

이번 학기엔 학보메이트 6기 모임을 마치고 약 60명의 인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학보메이트로 활동하시는지 조사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이화 구성원이 참여해주고 계신 걸 알게 돼 놀랐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17학번부터 22학번 새내기까지 다양한 학번의 학부생 분들이 계시고, 대학원생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조사에 참여한 학보메이트 57명 중 무려 22명이나 22학번 새내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도 전에 학보에 관심을 주셨다는 이야긴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요.

속해 계신 단과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대, 의대, 약대를 제외한 12개 단과대 학우분들이 골고루 계시네요. 학보메이트 구성원의 정체성이 이렇게나 다양한 만큼, 이화인의 여러 목소리를 두루 들을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며 더욱 발전하는 학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발행되는 호수마다 학보메이트의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 선호하시는 기사가 매번 생각보다 다양해서 놀라곤 합니다. 마감과 공정 과정을 거치며 수차례 기사를 읽을 때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피드백에서 발견하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보 기자들에게 힘이 되는 순간은, '기사를 통해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

됐다 느껴질 때'입니다. 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사 질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잊힐 만큼 보람찬 순간일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또 다음 기사를 열심히 쓰는 데에 필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학기엔 지난번과 다르게 학보메이트 채팅방에 전 기자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 피드백을 더욱 생생히 전달받을 수 있어서 학보 구성원 모두의 동기 부여에 더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저부터도 더 책임감을 느끼며 편집에 임하고 있으니까요.

기사 피드백 외에도 학보메이트가 하는 역할은 더 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 인터뷰를 통해 진로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 '이화잡(job)담'의 인터뷰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살롱드이화' 코너에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나눠주시는 것도 학보메이트 분들이지요. 또 누구보다 학보 구성원들과 가까이 있는 독자들인 만큼 기사화할 만한 소재를 기자들에게 직접 제보해주시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독자만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독자와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보이는 독자' 학보메이트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독자' 여러분께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학보메이트 분들의 한 마디 한마디를 원동력 삼아, 독자 여러분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대학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수칼럼 공감의 힘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화 모가디슈에서의 깃잎반찬과 온라인상의 깃잎논쟁. 공감의 힘과 깃잎 떼어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겠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공감의 상황이 잘 반영된 사례이다. 영화에서는 마주앉은 상대방이 깃잎을 떼어내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그 난감한 느낌을 교감한 후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난감했을지 상대방과 똑같이 느낄 수 있었기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영화를 감상하고 있던 우리도 비슷하게 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공감이다. 반면 깃잎논쟁에서는 공감을 해야 할 대상이 깃잎을 떼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 남친이나 여친 등 나의 행동에 영향을 받거나 나의 파트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깃잎을 떼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깃잎논쟁에서는 내가 교감하고 공감한 결과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대상이 깃잎절반찬을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깃잎 떼어내기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나의 파트너가 갖게 될 감정과 생각에 대해 공감을 한 뒤 행동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

여 객관성을 유지한 채 소통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동정과 달리 공감에는 느끼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즉,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소통하지 않는다면 공감아 아니다. "아, 정말 공감된다."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감에 관한 표현이나 상황은 아주 많다. 인터넷에 공감을 쳐서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문건들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공감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우리의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천 냥이라는 고액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사정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빚을 탕감해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일 것이다.

시민의식의 척도이자 잣대가 된 공감은 이렇게 꽤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구하려 할 것이다. 맹자의 말이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라는 뜻의 '서충'은 평생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공자의 말이다. 이 둘 다 공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려 행동으로 옮기는 공감을 해내려면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리프킨은 자신의 취약함과 고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취약함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힘을 발휘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두렵고 힘든 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은 환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그들이 처한 상황, 감정, 그리고 생각을 비슷하게 경험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켰다. 사회복지사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제약 속에서 사회복지기관 이외에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이용자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공감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절대적인 책임감으로 전환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공감의 힘이다.

공감은 타고나는 인성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싶은지, 상대방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비슷하게 느끼는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면 나의 공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발하면 된다.

공감력을 갖추는 것에 머무르면 그것은 공감아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공감은 소통을 해야 진정한 공감이다. 다시 깃잎논쟁으로 가보자. 파트너에 대해 공감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깃잎 떼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논쟁은 없었을 것이다. 비록 논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논쟁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소통하였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파트너의 감정과 생각을 배려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영향을 깨닫고 파트너에게 공감하게 될 것이다. 분명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공감의 힘이다.